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다이이치생명, 사상 최대규모 해외기업 인수

- 최근 일본 2위 생명보험회사인 다이이치생명(第一生命保險)은 호주의 중견 보험 회사 ‘타워 오스트레일리아 그룹’을 내년까지 지분매입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함.
- 지금까지 타워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의 보유주식의 약 30%를 가지고 있는 다이이치생명은 11억 9,300만 달러(996억 엔)을 추가 출자해 내년 5월까지 지분비율을 71.04%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함.
- 해외출자 규모로는 생명보험업계에서 사상 최대로 총 인수금액은 발표 직전 기준 타워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주가의 46.5%, 지난 1개월 간 타워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평균 주가의 46.2%의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임.
- 향후 일본과 호주의 관련 당국의 허가와 타워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의 주주총회에서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나, 다이이치생명은 내년 5월 완전 인수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.
- 다이이치생명의 이번 인수는 주식회사 전환 후 핵심 사업전략 중 하나인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의 첫 번째 성과로 향후 성장여력이 충분한 호주 보험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이번 인수는 다이이치생명이 올해 4월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이후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목표로 기업인수 등을 통한 해외사업 확대 기치를 내세운 이후 첫 번째 사례임.
- 인구 증가로 의료보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호주는 사망보험이 연 10% 이상 증가하는 등 호주 생명보험시장의 성장 여력이 충분한 만큼 이번 인수를 계기로 다이이치생명이 호주 보험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.
- 한편, 타워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2010년 9월까지 9억 4,200만 달러(약 787억 엔)의 수입보험료와 8,700만 달러(약 73억 엔)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, 인수작업이 완료되면 다이이치생명의 1주당 이익은 330엔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
(요미우리, 12/29)